

# 한스경제

hansbiz.co.kr



2022년 6월 23일 목요일 | 15판

## 한스경제 Brief

누리호 발사 성공... 우주 항공주는 '하강'

설계부터 시험·조립·발사 등의 전 과정을 국내 기술로 만든 첫 한국형 발사체(KSLV-2)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했다.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는 자체 기술로 11급이 넘는 위성을 쏘아올린 세계에서 일곱 번째 나라가 됐으며 명실상부 우주 강국 반열에 올랐다. 이에 누리호에 참여한 기업들뿐 아니라 국내 우주·항공주 전체가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됐다. 증권가는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된다면 관련 주들의 주가가 상승세로 이어질 것이라 전망했지만 발사 성공 후 하루 만에 하락 중이다.



최용재 기자  
기사 4면

KPGA 사상 첫 '10억 상금왕' 탄생할까

23일부터 나흘간 충청남도 천안시 우정읍스 컨트리클럽(파71-7326야드)에서 열리는 코오롱 제6회 한국오픈 골프선수권대회에는 남자골프 내셔널 타이틀 대회에 어울리는 거액의 상금이 걸려 있다. 총상금 13억5000만 원에 우승 상금은 무려 4억 5000만 원에 달한다.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 안이 무어 일반 대회 우승 상금이 3배 안팎 수준이다. 대회 결과에 따라 KPGA 코리안 투어에서 사상 최초 '10억 원 상금왕'이 탄생할 수 있다. 제네시스 상금 1위 김비오(32)의 현재 시즌 누적 상금액은 6억 2680만9733원이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그의 시즌 누적 상금은 10억7680만9733원이 된다.

박종민 기자  
기사 1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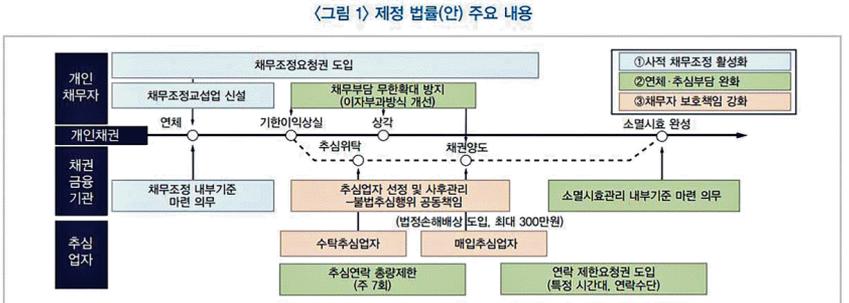
# '빛 구렁텅이' 빠진 개인채무자 숨통 트일까

개인채무자의 '협상력' 보안을 위해 채무조정교섭업이 도입됨에 따라 그동안 채무추심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개인채무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에 지난 2000년대부터 수 차례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부족했던 '빛'의 구렁텅이에 빠진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보완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8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개인금융채권의 관리와 연체 이후 개인채무자의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규율하는 별도의 입법이 없어 채권금융기관에 비해 열위(劣位)에 있는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주요 내용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와 추심, 채무조정과 관련한 채권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 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채권수탁채무자, 채권매입채무자, 채무조정교섭업자의 허가, 등록,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 것이다.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은 지난 2002년 신용회복위원회 개편이후, 2004년 법원 개인회생 등의 채권자 집단 채무조정 제도를 구축하며 시작했다. 2009년엔 채권추심법을 제정해 가혹한 불법 추심행위를 제한했고, 2002년엔 대부업법을 제정하며 불법사금융 제한 및 매입추심업 규율, 감독 등을 시작했다. 이번엔 제정하는 법률은 대물계약 당사자인 채권금융회사와 개인채무자 사이 사적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특히 개인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돕는 채무조정교섭업을 도입하는 게 골자다.

연체한 개인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들 개인채무자의 전문성과 협상력 보안을 위해 채무조정교섭업자가 요건서 작성과 제출, 채무조정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확인, 채무조정 내용의 검토와 협의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료 : 금융위원회(2020)

변호사 임기에 그동안 도입 논란만... 신용회복위와 관계 설정도 관심 집중

금융사와 개인은 대물계약 이전에는 동등한 관계로 시작하지만, 연체가 이뤄질 경우 순식간에 갑을관계로 전세가 뒤바뀐다. 연체 채무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논란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금융사 역시 대물승인 이전에 이를 검토해야 할 책임이 따른다. 채무조정교섭업자가 하는 일은 마치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일과 비슷해 보인다. 실제로 채무조정교섭업 도입에 있어서 그동안 변호사들은 이를 법률행위라고 주장해 왔다. 채무조정교섭업자는 법인으로 일정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책임과 의무가 부여된다. 요건은 사업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1억원 이상 자기자본 등이 거론되고 있다. 변호사법과 다른 변호사나 법무법인, 법무조합은 별도 등록 없이

채무조정교섭업자로 일할 수 있다. 기존에 채무조정업무를 수행하던 곳은 '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신용회복위원회였다. 향후 도입될 채무조정교섭업자가 민간 법인으로 신용회복위원회는 행정특수법인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참여한 복수의 채권금융회사에 대해 다중 채무조정과 지원 역할을 해 왔다. 협약에 가입한 금융사들에게 채무조정의 효력을 강제할 수 있는 '행정력'을 갖고 있었던 의미다. 그에 반해 채무조정교섭업자는 개별 채권금융회사와 건별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향후 채무조정교섭업이 도입된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 한국금융연구원 임형석 선임연구위원은 "채무조정교섭업자에게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청접수 대행 업무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채무조정교섭업자를 통해 접수된 신청은 신용회복위원

회가 채무자 납입 수수료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채무조정교섭업자의 과도한 영업활동으로 되려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이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일부 위탁하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개인채무자 보호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채무조정교섭업처럼 영리 채무조정 서비스업이 일찌감치 시행된 미국의 경우 제도 도입 초기에 과대 광고와 마케팅, 높은 선납 수수료, 고객지원이 없는 결과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빈번했다고 한다. 아울러 채무조정교섭업자로 등록할 때 의무 교육이수 기관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지정하거나, 등록 업무를 위원회가 수행하는 방안, 향후 채무조정교섭업자 인증제도 등을 도입할 때 이를 관할하는 기관으로 활용하는 등의 내용도 검토할 만하다.

박종민 기자 pkbiz@sporbiz.co.kr

## 치열해지는 손목 위 '스마트 전쟁'

삼성전자·애플·구글·사오미 등 하반기 고급형 '스마트워치' 출격

전세계 주요 스마트워치 제조사들이 올해 하반기 가장비거 뛰어난 피트니스 트래커 '스마트밴드'부터 고급형 '스마트워치'까지 출격을 앞두고 있다. 공급망 불균형과 물류비 상승 등 인플레이션에도 전세계 스마트워치의 시장 강세는 이어지고 있어 손목 위 예러를 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기업들 간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오미가 22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최신 피트니스 트래커 '샤오미밴드7' 국내 출시를 발표했다. 전작인 '미밴드6'보다 더 커진 '미밴드7'은 1.62인치 AMOLED(AMOLED) 디스플레이와 326PPI의 고해상도 등을 탑재했다. 110개 스포츠모드와 VO2 max 분석을 통해 사용자의 운동 성과를 지원한다. 미밴드7 출격가는 5만 9800원이며, 얼라버드 행사 기간에는 4만9800원으로 구매 가능하다.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 자체대 피트니스 트래커 '갤럭시핏3'을 출시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2020년 9월 선보인 갤럭시 핏2에 이어 2년

만이다. 갤럭시핏3은 전작보다 개선된 AMOLED 디스플레이와 더 확장된 헬스 추적 기능, 산소포화도(SpO2) 측정능력, 한층 다양해진 시계모드, 길어진 배터리 수명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은 전작과 비슷한 수준인 5만달러로 추정된다.

삼성전자는 신형 폴더블 스마트 폰 갤럭시Z 폴드4와 플립4와 함께 세 스마트워치 시리즈인 '갤럭시워치5'도 오는 8월 10일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갤럭시워치5는 일반모델과 프로모델로 나뉘며, 구글의 웨어 운영체제(OS)를 적용해 높은 측정 기능을 추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애플도 올 가을 평면 디스플레이 디자인에 체온 측정 등의 기능을 탑재한 '애플워치8' 시리즈를 출시할 예정이다. 구글 역시 같은 시기에 첫 스마트워치인 '픽셀워치'를 선보일 계획이다. 자체 개발한 안드로이드 기반 예러를 가진 웨어 OS를 적용했다. 여기에 구글이 2019년 21억 달러(2조6800억원)에 인수한 예러를 기



애플워치8 시리즈와 갤럭시워치4 시리즈(왼쪽부터).

사진=애플, 삼성전자

전문 업체 '핏빗'의 헬스케어 기능도 추가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22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전세계 스마트워치 출하량이 1년새 13% 증가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워치는 올 1분기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1%로 2위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2.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1위 애플 점유율은 36.1%로 전년 동기 대비 0.2%포인트 늘었다. 화웨이(7.2%), 사오미(5.0%), 가민(4.3%), 에메이즈핏(3.4%), 핏빗(2.7%) 등이 뒤를 이었다. 사오미는 1분기 스마트워치 출하량이 가장 큰 것으로 상승했다. 사오미는 지난해 같

은 분기보다 69% 증가해 처음으로 4위에 올랐다.

시장조사기관 카날리스토 15% 성장한 것으로 집계해 스마트워치의 약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카날리스토는 설문조사에서 서유럽 응답자의 34%가 향후 12개월 이내에 스마트워치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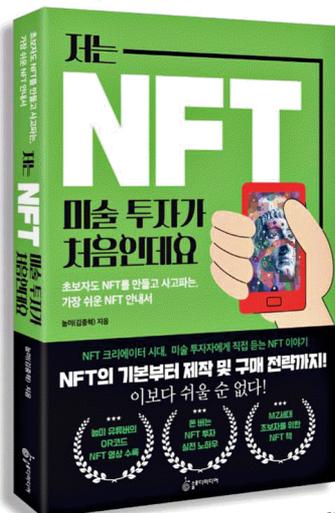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바짝 뒤쫓는 가운데 구글 등이 가세하면서 향후 시장이 3강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향후 스마트워치 시장이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최용재 기자 choj@sporbiz.co.kr

## NFT 투자를 시작하려는 초보 컬렉터들의 실전 가이드북

"어떤 NFT 작품을 구매하고, 판매하고, 제작해야 할까?"

- 유명 유튜버의 QR코드 NFT 영상 수록
- 돈 버는 NFT 투자 실전 노하우
- MZ세대 초보자를 위한 NFT 책



## 초보자도 NFT를 만들고 사고파는 가장 쉬운 NFT안내서

